

언약에 따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하여

언약에 의해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 주시는 은혜에 대해 다윗왕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9 : 1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9 : 7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무엘하 9 : 13 브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구약 성경 안에는 신약에서 성취되어질 여러 가지 사실들이 모형으로, 혹은 예표로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아 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마치 그림처럼 보여 줍니다.

오늘은 다윗의 생애에서 브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언약에 따라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강론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먼저 브비보셋이 누구인가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한 사울왕 즉 브비보셋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하며,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하는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울 왕은 사람이 무서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올라 가는 것 같이 보이자,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 즉 브비보셋의 아버지는 다윗을 사랑하여 끝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왕위를 놓고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같이 서로 사랑하여, 누가 왕이 되든지 후손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인애를 베풀어서 보호해 주기로 언약합니다.

후에 사울왕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둘 다 전사합니다.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였고, 다윗은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 그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풁니다.

다윗왕은 전에 사울왕의 사환이었던 시바를 불러

사무엘하 9 : 3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고 합니다.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이 바로 므비보셋입니다(삼하 4:4 참조). 그런데 다윗왕은 이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인 므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왕이 므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무서워 하면서 왕의 앞에선 므비보셋에게 다윗왕은,

사무엘하 9 : 7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발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므비보셋의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그 아들 므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라고 하는 말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삼상 20:15-16 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0 : 15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사무엘상 20 : 16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사무엘상 20 : 17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과 다윗은 왕위를 놓고 생각할 때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사람은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넘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 된던지 자손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서로 끈까지 보존해 주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왕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므비보셋에게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사무엘하 9 : 7) 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왕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9 : 9 왕이 사울의 사환을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사무엘하 9 : 13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사울왕에게 속하였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고,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으로 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므비보셋은 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 줍니다. 사울왕에게 속하였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2. 다음은 므비보셋이 다윗왕으로 부터 얻은 은혜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왕이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겨 주어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앉아 먹는 것은, 신약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다윗왕은 하나님을, 요나단은 예수님을, 므비보셋은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은혜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은 딤후 1:2 을 보면,

디도서 1 : 2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영원한 때 전에 약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전에 약속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택된 자의 대표이신 예수님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실 것이 약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디모데 후서 1:9 은,

디모데후서 1 :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 합니다.

영생을 행위에 따라서가 아닌 은혜로 주시기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은혜로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므비보셋이 다윗 왕의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자처럼 왕의 상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 :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 :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므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앉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왕자의 자격으로 앉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왕이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겨 주어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앉게 한 것으로 보여 줍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왕으로 부터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왕이 무서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숨어 지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불렀을 때 왕앞에 나아와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사무엘하 9:8)하며 죽일까 겁을 냈습니다. 다윗왕은 사울왕의 모든 기업을 므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고 왕자의 자격으로 왕의 상에 앉아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왕으로 부터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그 아비 요나단과 다윗왕의 언약으로 인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 오셔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를 물마시듯 하며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 인간을 찾아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마음속 깊이 물어버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내렸든, 혹은 대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망각의 창고에 던져 버렸든, 누구나 한번은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매일 매일 수고의 땀을 흘리며,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지만 이것이 삶의 전부인가? 이대로 살다가 목숨이 다하여 땅속에 묻히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마는데 그것이 삶의 궁극적 종착역인가? 영원한 것은 없는가? 영원한 기쁨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카뮈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피르소오라는 사람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 났으니까 사는 것이다. 나를 낳아 달라고 누구에게 요구한 적도, 내가 태어 날려고 스스로 노력한 적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던져져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죽음은 생이 끝나는 그 자체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이 세상엔 영원한 절대적 가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뿐이다. 먹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 성적 충동을 느낀다는 것, 그런 것들은 나 자신일 뿐 더 이상 다른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피르소오가 아랍 사람을 권총으로 살해한 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형무소 담당 신부가 면회를 요청해도 거부합니다. 피르소오가 신부의 면담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는 신부가 찾아 와서 무슨 말을 나에게 할지 다 안다. 신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나에게 중요치 않다. 신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나에게 중요치 않다. 신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하는 요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본 사람과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저는 불신자때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신이 존재하든 않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존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찾아 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북 이산 가족이 재회하는 장면을 T.V로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6.25 사변 때 헤어진 후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헤어질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웠던 대상을 발견하고 서로 껴안고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터지는 눈물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 :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찾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찾습니다. 영원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분을 소유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잡니다.

이렇게 영원을 그리워하던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 안에 있던 영원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면서, 영원한 분을 만난 기쁨에 눈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리워 하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이 영원한 영의 아버지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신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나에게 중요치 않다. 신이 있다한들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던 사람조차도, 마음속에 있던 영원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면서,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이 영의 아버지를 만난 기쁨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못받은 사람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머리로만 알던 사람이, 실제로 계심을 인격대 인격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분기점입니다.

이것이 영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오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다음은 영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흐르는 회개의 눈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 오시면,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산 자신을 돌아 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아버지를 만난 기쁨의 눈물과 함께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신을 키워 주고 기르신 영의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라고 고집부리며 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며, 고아라고 떠들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쇠뿔 위에서 뒹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썩을 재물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 모든 시간을 보낸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자기 영혼의 별거벗은 수치를 바라보며 한없는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독교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 모니카와 불신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십대 시절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의 종교라고 하여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그는 부모의 간섭이 싫어 친구를 배웅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로마로 도망갔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고, 플라톤을 공부하고, 마니교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보통의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모니카는 살아 있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기도로 인해 어거스틴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가며 부르는 노랫 소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의미로 어거스틴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얼른 성경을 취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 :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음이니라
로마서 13 :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 :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 :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11-14 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 :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 :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 그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그의 영혼에 모든 의심의 구름이 물러가고, 신앙의 빛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가시채와 같이 자기의 영혼을 엮어매던 육신의 정욕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남과 같이 벗어났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영원에 대한 갈증이 영원하신 아버지로 인하여 채워지자 소나기같은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그의 영혼에 가득 채워졌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불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영혼에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 변하여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사람을 찾아올 때 변화가 일어 납니다.

인생의 모든 고뇌와 슬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6 :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 : 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직은 하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고 있는 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